

급식조리실 환경 개선 본격

도교육청, 환기설비 개선 TF 구성... 첫 회의 열어 조리실 환기설비 점검 예산 편성... 내년 상반기 점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급식조리실 환경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TF'를 구성, 지난 28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급식·시설안전 관련 공무원과 영양 교사·노동조합 관계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TF는 조리실 환기설비 전문점검을 통한 현장 실태조사 등을 시작으로 환기설비 개선 로드맵 마련을 위한 활동

을 전개할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는 환기설비 전문점검 실시를 위한 점검대상 학교 선정기준과 점검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전문점검 예산을 편성하고, 2023년 상반기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대상 학교를 추가 선정해 점검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급식종사자 폐암 발병 등으로

급식조리실 작업환경 개선이 꾸준히 요구됨에 따라 신·개축 및 리모델링 학교에 대해 고용노동부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에 맞는 급식조리실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향후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전문점검 결과를 토대로 환기설비 개선 등이 필요한 학교에 대해 2023년부터 연차적으로 환기설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급식종사자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제공을 위해 학교 작업환경에 맞는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점검과 개선을 통해 급식종사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지역과 함께 상생하고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사회적 가치 실현'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연말 성과공유회서 '홍당무마켓' 열어 제로 웨이스트 실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전정희)는 지역과 함께 상생하고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29일 센터에 따르면 센터 내 입주 기업과 교육 수강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홍당무마켓'을 열어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고, 장터 수익금 전액을 공동생활가정인 여성 마음 돌봄 및 등산하브 주머니

를 돕는 플러깅까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연말 성과공유회에서 중고물품 장터인 일명 '홍당무마켓'을 열어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고, 장터 수익금 전액을 공동생활가정인 '그림'에 전달했다. /정은성 기자

'그림'은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로 구성된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으로, 보호대상 아동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서 보호, 양육,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전정희 센터장은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예년에 비해 도움이 손길이 많이 줄었다는 말을 듣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더욱 따뜻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출생가판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겨울방학 학교관리자료 안내

재난 피해 대비 보고체계 유지·학생 맞춤형 지원 등 도교육청, 학교 경영·관리 필요 부서별 중요 정보 담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2022 겨울방학 학교관리자료를 마련,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자료에는 겨울방학 중 학교경영·관리에 필요한 각 부서별 중요 정보 및 필수 행정사항을 담았다. 우선, 겨울철 대설·한파 피해를 대비해 보고체계 유지, 사전 대비 조치 점검, 예방 교육, 시설물 안전 점검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또 학습과 관련해서는 자율적 학생 주도형 방학 과제 및 학습 내용뿐 아니라 학습 과정에 대한 피드백이 가능한 과제를 제시하며, 수행평가와 연계한 과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과제 등은 지양하도록 했다. 특히,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방학 중 지도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초학력 향

상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학생 수준에 적절한 기초 학습 및 교과학습 프로그램, 나만의 강점 찾기 등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자기 효능감 향상 및 관계회복 프로그램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 교사들을 위한 방학 중 다양한 에듀테크 관련 연수에 참여해 2023년부터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을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주변화 학교교육과정'은 겨울방학 학교관리자료는 겨울방학 중 학교경영과 관리에 필요한 정보와 행정 사항을 담고 있다"면서 "방학 중에도 학교는 필요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차년도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대학원생 재난위험경감 등 논문 공모 입상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는 지난 28일 열린 2022 전국 대학원생 재난위험경감 및 지역사회 복원력 논문 공모전 시상식에서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와 한국방재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공모전에서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장덕진·이희상(이상 박사과정 2차수) 대학원생은 '뉴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재난방송 시사점 모색'의 연구로 대한적십자사회장상인 우수상을 선정했다. 또한 이희상 대학원생은 공학성 주입교수와 함께 안전시설 등 설치 여부에 따른 신중 다중이용시설 피난시간 분석이라는 논문을 제출해 한국방재학회회장상인 장려상을 받았다. 공학성 주입교수는 "석·박사과정 개설 이후 매년 국제학술대회와 논문 공모전에서 다수의 입사자를 배출하고 있어 매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더 많은 대학원생이 좋은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2023학년도 중등교사 임용 1차시험 합격자 발표

공립 462·사립 86명 내년 1월 2차시험 실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9일 2023학년도 전라북도 중등학교 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제 1차시험 합격자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제1차시험에서 공립은 328명(일반 297명, 장애31명) 선발에 총 462명(일반 458명, 장애 4명)이 합격했다. 합격자 결정은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성적이 높은 사람 순으로 모집인원의 1.5배수를 결정했다. 합격선에 등점자가 있는 경우 모두 합격 처리했다. 또 사립은 86명(21법인 19과목) 선발에 총 480명이 합격했다. 합격자 결정은 사립 단독지원자가 우선이며, 선발 인원 대비 합격자수가 미달인 경우 공·사립 동시지원자(공립 합격자 제

외) 중 미달된 수만큼 성적이 높은 사람 순으로 결정했다. 사립 역시 합격선에 등점자가 있는 경우 모두 합격 처리했다. 한편 합격 여부와 성적은 내년 1월 13일까지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제출시스템(https://eduarcuit.jbc.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사립학교 합격자는 이후 진행되는 제2차 시험일정 등을 해당 학교법인의 자체 시험 계획에서 조회해야 한다. 제1차시험 공립 합격자는 30일과 내년 1월 2일 2일간 관련서류 등을 도교육청 창조나래(별관) 2층 1회의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 제출보다는 비대면(등기우편) 제출을 권장한다. 제2차시험은 1월 12일 실기평가, 1월 18일 수업실연, 1월 19일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최종합격자는 2월 7일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www.jbc.go.kr)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 물리치료학과 국가시험 100% 합격

우석대학교 물리치료학과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국가시험위원회)에서 시행한 제5회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에서 재학생 28명이 전원 합격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국가시험은 전국적으로 5430명이 응시해 4677명이 합격, 86.1%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김세연 학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환경과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학과의 첫 졸업생들이 이룬 값진 성과에 감회가 새롭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현장중심 교육과 성과 학생 맞춤형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석대학교 물리치료학과는 1학년부터 전담 지도교수를 배치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진로취업지원 커리어 로드맵을 통해 학생 스스로 장단점을 파악하고 진로 변화 과정을 탐색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정은성 기자

신중년, 도내 문화예술 지원 '키워드'

전북문화관광재단, 실버마이크·인생나눔교실 등 펼쳐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평균보다 높은 전북지역의 사회적 문제를 문화예술로 해결하기 위해 신중년 대상 사업을 개발 추진했다. 29일 재단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마이크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의 지역문화재단 협력사업으로, 그간 큰 호응을 얻어온 청춘마이크 사업의 신중년 버전이다. 실버세대의 문화 참여 경험과 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가 있는 삶을 실현하고 문화 활동 기반을 조성, 그들의 능동적 문화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비 2억5,000만원을 확보, 도내 어르신 공연팀 20개 팀을 선발해 11월까지 전주, 익산, 무주, 순창, 진안, 임실 등지에서 20여 차례 공연을 진행했다. 이러한 세대가 만나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대표적 사업으로, 세대 간 소통, 사람 중심 가

형 공간에서 1천여 명의 도민들이 관람했다. 이 사업은 신중년세대의 문화활동 기반 마련과 활동촉진이라는 신중년 매개사업 본연의 목적 외에도 문화 소외지역인 마을인근, 일상적 공간에서 공연의 문턱을 낮춰 오가며 잠시 잠깐 흥미로운 공연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이다. 또 인생나눔교실은 만 50세 이상의 중·장년 세대가 주체가 돼 삶의 경험과 인문적 가치를 발견하고, 실천해 보는 지역 중심의 소규모 인문 활동 사업이다. 2017년부터 시작한 인생나눔 사업은 올해로 6년째 운영하며, 어른 멘토 37명이 지역아동센터, 대안학교, 작은도서관 등에 찾아가 600여명의 아동·청소년들과 만났다. 다양한 세대가 만나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대표적 사업으로, 세대 간 소통, 사람 중심 가

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목적으로 중장년층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더불어 재단은 50세 이상 전문예술인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전북대병원, 남원의료원과 협력으로 보다 구체화했고, 110만원 상당 종합건강검진 패키지 지원에 도내 50여명의 예술가가 혜택을 받았다. 특히 남원의료원 야외정원에서 공공 미술프로젝트를 진행해 예술가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마지막으로 재단은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있다. '오랏에서 무렵까지'라는 맞춤형 유아기를 시작으로 학령기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도민의 생애주기에 걸쳐 문화예술을 누리고 참여하는 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이라는 도정 방향에 발맞춰 지역의 새로운 변화와 함께, 감동과 활력이 되는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원광대 식품산업커플링사업단, 산학공동프로젝트 발표회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 식품산업커플링사업단은 2022 식품산업인의 밤 산학공동프로젝트 발표회를 최근 교내 프라임과 컨퍼런스 홀에서 개최했다. 전북도에서 주관하고 원광대에서 운영하는 대학 산·학·관 이공계열 식품산업커플링사업단은 도내 식품산업체와 대학 간 협력으로 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식품 관련 제품 연구 및 공동개발 등 맞춤형 프로젝트를 지난 9월부터 이달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진행했다. 프로젝트 발표회는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개선을 위한 바나나 껍질 이용 바나나 껍질 차 제조, 영유아 식품관 개선을 위한 교육 자료 개발, 곡류를 달린 누룽지의 가열시간에 따른 품질 특성 비교 실험을 이용한

반조리식품 개발 등 팀별로 식품산업 분야 전반의 발전을 위한 주제가 발표됐다. 이번 발표회는 순위를 가리는 보통의 경연 방식을 탈피해 모두가 식품산업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는 협업의 자리로 마련돼 의미를 더했으며, 코로나19로 제한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생동감 넘치는 오프라인 행사가 이루어져 도내 식품기업체 관계자와 참여 학생, 학교 관계자 등 사업단 구성원을 중심으로 산학공동프로젝트 발표회를 비롯해 참여기업 홍보 및 간담회, 사업단 운영위원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김희경 식품산업커플링사업단장은 "강추위 속에서도 산학협력 행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올 한해를 마무리하며' | 전주비전대, 2022학년도 종무식 개최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정삼모)는 29일 2022년 종무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삼모 총장을 비롯한 보직자와 교직원, 그리고 발전기금기탁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종무식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대학 발전에 힘쓰는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행사는 학교발전을 위한 발전기금 전달을 시작으로 우수교직원 표창, 정부기관 표창장 전달식, 정삼모 총장의 송년사 순으로 진행됐다. 베트남 유학생들과 대학발전을 위해 매년 5백만원씩 꾸준히 발전기금을 기탁해온 V-ONE의 서진호 대표는 "K-Vision을 안고 허기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진 전주비전대학교를 찾아와 한국의 문화와 신기술 및 학문 습득에 몰두하고 있는 유학생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되고 싶은 마음에서 발전기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끊임 없는 노력으로 자신의 꿈을 성취해 본국으로 돌아가 자국의 리더로 성장할 유학생들이 한국을 제1의 모국으로 생각하며, 국가의 교육과 발전, 특히 전라북도와 유학생들



29일 열린 2022학년도 전주비전대학교 종무식에서 학교발전을 위한 발전기금 전달식이 열렸다.

간의 가교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전북은행과 대성건설, 박천수 정형외과, 파리메스 박호진, 대성개발 임영자, 케이원주식회사/김강일, 에스코트컨설턴트, 믿음공조시스템 정진조, 삼성멀티테크 등이 대학에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정삼모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2년 우리대학이 거둔 눈부신 성과들은 모두 구성원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 혁신하고 발전하는 한 해로 만들자"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